

# 러시아 침공 결정과정에 미친 나폴레옹 리더십의 문제점

元 泰 載  
(국방부 공보실 차장)

1. 머 리 말
2. 18세기 유럽의 국제정치환경적 배경
3. 나폴레옹의 성격에 미친 가정·사회적 요인
4. 나폴레옹의 리더십과 외교정책의 특성
5. 러시아 침공 결정과정
6. 맺 음 말

## 1. 머 리 말

20세기는 세계인들, 특히 프랑스인들에게는 비극적인 시대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프랑스인들을 낙천주의와 낭만에 머물게 하는 위로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프랑스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샤를마뉴(Charlemagne) 대제로부터 드골(Charles De Gaulle)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정신유산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Napoleon Bonaparte)는 프랑스 정신의 최고봉에 우뚝 서 있다. 사실 나폴레옹만큼 프랑스 민족의 자존심을 높인 인물은 없었다. 세계를 정복했던 이 키 작은 육군 포병소위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남성적이고 가장 완전한 영웅답게 부침의 곡선이 확실한 삶을 살았다. 그는 25세에 이미 유명해졌고, 40세에 모든 것을 소유했으며, 50세에는 이름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sup>1)</sup>

나폴레옹은 징기스칸 이후 처음으로 전쟁기획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8세기 말에 등장하여 1815년 워털루 戰役에서 패하기까지 20여년간을 전장을 직접 누비며 전쟁을 지휘했다. 어떤 역사가는 나폴레옹은 자신이 좋아했던 인물들인 알렉산더 대왕이나 한니발, 카이사르 등이 싸운 전투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의 전투를 치렀다고 말하고 있다. 1814년 프로시아의 블뤼허(Blüher) 장군은 나폴레옹이 전장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프랑스군 4만명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sup>2)</sup>

프랑스의 문호 발자크(Honoré de Balzac)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나폴레옹의 영혼은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살아 있다. 하지만 웰링턴은 우연한 존재에 불과했다. 프랑스는 아직도 나폴레옹이 그의 무덤 속에서 영국과 싸우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여겨도 된다”<sup>3)</sup>고까지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후세의 사가들이나 군인들은 지금까지 나폴레옹의 위대한 군사적 천재성에 매료된 나머지 그를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해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시 그의 빠른 상황판단과 용병술은 가히 과학(science)을 뛰어넘어 예술(art)의 경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1) 원태재,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육사전사학과 편, 『나라를 빛낸 명장들』(서울: 병학사, 1984), p. 215.

2) R. Ernest Dupuy and Trever N. Dupuy,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7), p. 740.

3) David G. Chandler, *The Military Maxims of Napoleon*(London: Greenhill Books), p. 33.

언제까지나 막연한 신화적 존재로 역사 속에 머물러 있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를 통해 ‘뛰어났지만, 동시에 결점과 실수도 있었던 살아있는 장군’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폴레옹의 천재성은 이론가로서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실적인 군인이자 정치인이었다는 데에서 발견된다. 그가 내린 많은 명령서들을 보면 명령 수령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심지어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더러 발견된다. 특히 그는 1799년 제1통령에 부임하자마자, 당시 프랑스 육군만이 보유하고 있던 ‘열기구부대’의 해체를 명함으로써 자신의 C3I(command, communication, and control, with Intelligence) 능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4)</sup>

나폴레옹군의 정보수집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오관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나폴레옹이 오늘날의 위성감시장비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수집기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라면,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파리의 블로뉴 숲을 통해 진군해온 블뤼허의 프러시아군 3개 군단을 오후 1시 30분이 아니라 적어도 오전 10시경에는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랬더라면 워털루 전투의 결과는 물론, 19세기 유럽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이와 같이 전술·전략적으로 적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는 이에 앞서 감행된 러시아에 대한 침공이라는데 대체로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은 이보다 약 130년 후에 일어난 히틀러의 러시아 침공과 곧잘 비견되는데, 이는 두 사건이 모두 독재자들—천재이건 미치광이이건 간에—에 의해 일어났으며, 특히 측근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무모하게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4) *Ibid.*, p. 19. 열기구(montgolfiere)는 1783년 프랑스의 몽골피에(Montgolfier) 형제가 발명했다. 또한 1793년 플레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군에게 탈취당한 열기구가 아직도 비엔나에 있는 오스트리아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코넬리(Owen Connelly)가 집필한 『나폴레옹시대 프랑스 역사사전(Historical Dictionary of Napoleonic France)』을 보면, 나폴레옹의 가장 가깝고도 신뢰하는 측근들과 고문들 대부분이 러시아 침공을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나폴레옹의 유능한 최고 법무관료로 대법관과 나폴레옹 부재시 파리 행정감독관을 지낸 캉바세레(Jean-Jacques Régis de Cambacérès), 러시아 알렉산더 황제 때(1807-1811) 러시아 주재 대사와 그 후 나폴레옹의 경호를 맡았던 기병대장 꼴랭꾸르(Armand-Augustin-Louis Caulaincourt), 내무장관(1804-1807)과 외무장관(1807-1811)을 지낸 샹빠니(Jean-Baptiste de Nompère de Champagny), 나폴레옹에게 가장 인정받은 유능한 행정가였으며 1811년 4월 이후 나폴레옹의 일일통신문 발송담당 국무장관<sup>5)</sup>이었던 다뤘(Pierre-Antoine-Noël-Bruno Daru), 직책상 매일 나폴레옹과 접촉했던 궁정 수비대장 뒤로크(Géraud-Christophe-Michel Duroc), 전시 행정장관으로서 65만 침공군의 모든 보급을 관장했던 라꾸에(Jean-Gérard Lacuée), 그리고 1811년 꼴랭꾸르에 이어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으며 나폴레옹이 총애했던 부관출신의 로우(Jacques-Alexandre-Bernard Law) 등이 모두 러시아 침공에 강력하게 반대했다.<sup>6)</sup>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왜 이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침공을 강행했을까? 나폴레옹의 유능한 참모들 대부분이 관련정보를 잘못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도 모르는 나폴레옹만의 비밀스런 이유가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일단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결정이 당시 국제정세나 군사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주로 나폴레옹 개인의 독자적인

5) 나폴레옹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부하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시를 하였다. 따라서 그의 주변에는 항상 이러한 지시를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각 부대나 일선 행정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비서관이 5~6명이나 있었는데, 통신문 발송담당 장관이 이러한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ibid.*, p. 14.

6) Owen Connelly, *Historical Dictionary of Napoleonic France*(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5), pp. 94, 103, 104-5, 143, 154-55, 160, 286-87, 357-58.

판단에 의해 내려졌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1987년 출간된 『프랑스 역사연구(French Historical Studies)』에 실린 논문 “다시 보는 나폴레옹(Napoleon Reconsidered)”에서 파커(Harold T. Parker)는 나폴레옹의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환경적 가치관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코르시카 사회와, 프랑스 사회 그리고 유럽 국제사회와 접촉하며 살아야 했던 나폴레옹의 심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sup>7)</sup> 그러나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건에 미친 개인적인 특성과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및 국제외교적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문제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이 작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에 유의하면서 18세기 유럽 국제정치환경의 영향과 나폴레옹의 성격에 미친 가정 및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에 토대를 둔 나폴레옹의 리더십이 러시아 침공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18세기 유럽의 국제정치환경적 배경

먼저 나폴레옹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프랑스혁명 전후의 유럽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살펴보자. 이탈리아방면군 사령관이 된 나폴레옹은 1796

7) 그 이전에 이미 나폴레옹과 그가 처음 태어난 코르시카 사회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Fernand Beaucour, Dorothy Carrington, Jean Defranceschi, Thadd Hall, 그리고 Ange Rovère 등이, 또한 그와 그의 두 번째 조국인 프랑스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Jean Bertaud, David Chandler, Owen Connelly, André Corvisier, Donald Horward, John Elting, John Lynn, Samuel Scott 등이 많은 연구업적을 내놓았으며, 나폴레옹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1796년경의 국제외교상황에 대해서는 Garrett Mattingly, Albert Sorel, André Fugier, Orville Murphy, 그리고 Paul Schroeder 등이 뛰어난 서술과 분석을 해놓은 바 있다.

년 4월에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함으로써, 오래 전부터 이미 都市國家들 간에 근대적 의미의 각축전이 전개되어온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15세기 이래 이탈리아반도에서는 플로렌스(Florence)와 밀라노(Milan), 베니스(Venice) 등 비교적 큰 국가들과 교황청(the Papal States), 그리고 나폴리왕국(the Kingdom of Naples) 간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줄곧 있어왔다. 일부 한 두 국가가 이탈리아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든 반면, 플로렌스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마치 나중에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려들었을 때,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목표로 한 것과 같다.

나중에 전개된 유럽 국제정치상황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는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몇 개의 소규모 국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사 파견, 동맹, 최후통첩, 위협,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이용하였다. 외교관들이란, 요즈음도 어느 정도 이런 속성을 지니게 마련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그럴 듯한 약속을 해주거나 일시적인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상대국을 속여서 결국은 기습 달성을 추구하고, 적을 힘으로 격파하기보다는 적의 약점을 관통하기 위해 속임수와 교활함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sup>8)</sup> 인물들이었다. 플로렌스의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는 그의 고전적 저서인 『군주론(The Prince)』에서 이탈리아인들과 이탈리아 내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던 외국인들이 활개치고 있던 당시 국내정치 또는 국제정치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본의 아니게, 목적(권력)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식 방식과 철학’을 후세의 유럽 정치가들에게 전수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9)</sup>

8) Conyers Read, *Mr. Secretary Walsingham and the Polish of Queen Elizabeth* (Oxford: Clarendon Press, 1925), 1:24.

9) 마키아벨리의 이론은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했던 당시 플로렌스의 입장에서는 매우 현명

1494년 당시 샤를르(Charles) 8세 치하의 프랑스는 밀라노의 편을 들었고, 반면에 스페인은 나폴리의 편을 들었다. 오늘날 거의 전세계에 확산되어있는 권력쟁탈전은 그 당시 이탈리아의 소도시 국가들과 公國들 사이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8세기 유럽 열강의 중심에는 프랑스·오스트리아·프로시아 그리고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스페인이 있었고, 외곽에는 상대적으로 외부침공으로부터 안전한 대영제국(Great Britain)과 러시아가 있었다. 그리고 다소 적은 국력을 지닌 국가들이 이탈리아반도와 노쇠한 神聖로마帝國(the Holy Roman Empire) 그리고 스칸디나비아반도 내에 자리잡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열강간의 관계는 우호적이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쟁관계였다: 즉, 끊임없는 국가이익 추구, 타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과 공포심,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서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계속된 군비경쟁, 동맹간의 협상과 거래, 심지어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의 과감한 전쟁 돌입 등.

황제와 왕 등 지배자들은 직접 서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통상 외무장관이나 외교관료조직, 그리고 각국 수도에 주재하는 대사들을 이용했다. 이 당시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인 프랑스식 외교의 조직과 절차 및 규범, 그리고 외교관들은 여타 국가들의 모델로 간주되었다.<sup>10)</sup>

이러한 국제정치세계에서 지배자와 통치자들의 끝없는 영토적 야망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북아메리카에서 영국군이 프랑스군의 요새 4곳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7년 전쟁(Seven Years’ War: 1756-63)’에서 ‘오만한 천재(arrogant genius)’로까지 불리었던 채텀(Chatham)이 각료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앓았더라면, 영국은 아마도 거의 모든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를 휩쓸었을 것이다.<sup>11)</sup> 러시아의 캐더린 2세(Catherine II)女

한 방책이었겠지만, 후세에 주로 독재자들에 의해 독재를 합리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식 권력투쟁 이론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0) Edward A. Whitcomb, *Napoleon's Diplomatic Service*(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79) 참조.

11) 대(大)피트(William Pitt the elder, 1st earl of Chatham, 1708-78)로 더욱 알려진 채

황제는 아들인 러시아 왕자를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의 왕좌에 앉힐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

때때로 전쟁은 예고나 선포가 없이도 기습적으로 감행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보존을 철석같이 약속했던 조약을 위반하며 감행된 프레데릭 대왕(Frederick the Great)의 실레시아(Silesia) 침공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the War of the Austrian Succession)의 예고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왕조들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동되었으며, 인구도 그들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이동되었다. 폴란드의 분할에서 보듯이 어떤 국가들은 쇠퇴하고 어떤 국가들은 분할되었으며, 심지어는 멸망하였다.

‘어둠 속의 전쟁터와 같은(as on a darkling plain)’ 갈등의 혼돈 속에서 야욕과 경쟁관계, 반목, 그리고 정책의 몇 가지 패턴이 등장했다. 첫 번째 경쟁관계는 독일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시아 사이에서 형성됐다. 또 다른 경쟁관계는 오스만 제국(the Ottoman Empire) 안에서의 영토확보를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간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쟁관계는 1689년부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4회에 걸친 전쟁을 통해 영국은 섬이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고 프랑스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비롯된 ‘복수(複數)의 유혹(Multifarious temptations)’<sup>12)</sup>을 역이용한 전략을 개발했다. 전략이란; 첫째, 대륙의 한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동맹국들에게 전쟁비용을 지원하여 전쟁을 지속토록 함으로써 프랑스

템 백작은 국무상으로 재임중(1756-61)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퀘벡을 함락하는 등 북아메리카와 인도지역에서 연전연승하였으나 국내의 반전여론으로 인해 사임하였다. 다음 연설 구절에서 그의 오만한 천재성을 엿볼 수 있다: “나는 내가 영국을 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Harold T. Parker, “Why did Napoleon Invade Russia,”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54 (April 1990): p. 138; “Pitt the elder, William, 1st earl of Chatham,” *A Dictionary of British History*, 1982 ed.

12) 프랑스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느끼는 두 가지 유혹, 즉 ① 유럽대륙 내에서의 패권 장악이나 영토확장에 대한 유혹과, ② 지중해나 인도 북미지역 등 해외로의 팽창 유혹을 말한다(필자 주).

로 하여금 대규모 함대를 건설하여 원양함대를 파견치 못하도록 출혈을 강요하고; 둘째, 영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프랑스의 무역과 이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을 붕괴시키는 한편, 고립되어 있는 해외 프랑스 수비대로 가는 모든 증원군과 보급품 수송을 방해하기 위해 해군의 우세권을 확보하여 프랑스 해안봉쇄를 강화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들어 버린 덩굴에서 과일을 따듯이 프랑스 식민지를 접수하기 위해 영국 원정군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대륙으로의 영토확장과 지중해·북미·인도 등 해외로의 팽창이라는 두 가지 기회에 유혹을 느낀 프랑스 정부는 하지만 선뜻 어느 한 쪽을 선택을 하거나 다른 한 쪽으로 집중을 할 수 없기에 국력을 분산되어 결국은 양쪽 모두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sup>13)</sup>

### 3. 나폴레옹의 성격에 미친 가정·사회적 요인

1980년대 미국의 많은 연구들은 임신여성들에게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선택에 주의해 줄 것을 경고한 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들에 따르면, 태아들도 태어난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청각능력이 있으며, 태어난 후에도 태내에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형인 조셉(Joseph)은 1768년 1월 8일 태어났는데 나폴레옹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온한 태아기를 보낸 때문인지, 그는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보는 이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며 매우 행복하게 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형인 조셉보다 1년 6개월 늦게 태어난 나폴레옹을 임신한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인 레티지아(Letizia)는 프랑스군의 공격을 피

13) Harold T. Parker, "Reflections on Thucydides and Some Aspects of Modern Coalitions," *South Atlantic Quarterly*, 78(1979): 73-83.

해 코르시카의 험한 바위투성이의 산길을 노새를 탄 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겨우겨우 도망다니고 있었다.<sup>14)</sup>

어머니가 겪은 이러한 위기가 태아인 나폴레옹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빈약한 다리와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와 야윈 몸을 지닌 어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사람들을 배척했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주의를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형인 조셉은 부모의 방에 함께 기거하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나, 반대로 나폴레옹은 어머니의 젖이 부족하여 여동생인 마리아 안나(Maria-Anna)가 태어나던 1771년까지도 유모와 함께 뒷방에서 지내야만 했다. 두 살이 지나서야 뒷방에서 나온 그는 아마도 자신의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들에 대해 친밀감을 덜 느끼고 심지어는 소외감까지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주의를 끌기 위해 특하면 남하고 싸움질을 했다. 1813년 그는 겨우 두 살 먹은 아들에게 이렇게 꾸짖었다: “이 게으른 녀석아, 나는 네 나이에 이미 형인 조셉을 두들겨 뺨단 말이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말썽을 부려서가 아니라 오직 성공을 통해서 남의 관심과 존경심을 얻도록 항상 타일렀다.<sup>15)</sup>

이러한 가족관계의 유형은 적어도 4개 유형의 심리 이론—즉,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pus complex), 아들러(Alfred Adler)의 형제경쟁(sibling rivalry), 코후트(Kohut)의 자아심리, 톰킨(Silvan Tomkin)의 각본(script) 이론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파커(Parker)는 톰킨의 이론으로 나폴레옹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톰킨에 따르면, 무대에서 하나의 장면(scene)은 ① 배우, ② 부여된 상황,

14) 이때 나폴레옹 가문은 코르시카를 점령중인 프랑스군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다 쫓기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의 부친인 카를로(Carlo)가 프랑스군에게 항복한 다음날인 1769년 8월 15일 태어났다.

15) Parker, “Napoleon,” p. 134.

③ 행위, 그리고 ④ 수반되는 감정적 상승효과로 이루어지는데, 같은 상황과 같은 반응 그리고 같은 효과가 반복되어 마침내 그 반응이 등장하는 배우의 습관이나 중요한 성향을 형성하여 관객에게 전달되도록 각본(script)은 짜여 있다는 것이다.<sup>16)</sup>

나폴레옹의 인생에서 두 살 때의 장면(scene) — 즉, 태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겪은 긴장과 궁핍, 그리고 모유 부족으로 유모와 함께 격리되어 있던 뒷방 생활을 경험하면서 타인과 외부에 대해 경쟁적으로 그리고 전투적으로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의식이 형성된 상황 — 과 유사한 장면은 인생을 통해 계속 반복되었다. 나폴레옹은 가족 내에서 고집쟁이 야심가였으며, 그의 가족들 또한 아작시오(Ajaccio)와 코르시카(Corsica), 그리고 나중에는 프랑스에서 모두 소문난 사회적 야심가들이었다. 그의 가문은 아작시오에서 최고 명문가는 아니었으나, 후일 나폴레옹의 말에 따르면 소젼틀맨(*petits gentilshommes*) 계층 출신이었으며, 1769년 이후 신분상승을 위한 모든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나폴레옹은 어려서부터 이런 문제와 관련한 가족간의 대화와 노력에 참가했다.

이러한 상황장면은 1778년 아홉 살 먹은 나폴레옹이 입학했던 브리엔느(Brienne) 유년학교에서도 반복되었다. 코르시카 혈통의 이 ‘겉 없는 꼬마소년(the new kid on the block)’은 프랑스의 오만한 귀족 자제들로 인해 무자비한 공격적 성향이 더욱 강해졌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수학과목을 열심히 하여 뛰어난 분석력을 보여줌으로써 오기(傲氣)를 보여주었다. 또한 코르시카의 독립운동가인 파올리(Paoli)와 손잡고 프랑스로부터 코르시카를 독립시키는 환상에 잠기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환상과 학습의욕은 학생 시절 자연스럽게 코르시카 역사연구로 이어졌다.

여러 해를 뛰어넘어 이러한 각본은 나폴레옹이 제1통령과 황제가 되었을

16) 톰킨의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파격적이고 정교하다. Silvan S. Tomkin, *Affect, Imagery, Consciousness*, 3 vols.(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62) 참조.

때 다시 반복되었다. 권력을 잡은 것 30세 된 나폴레옹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으나,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를 거둔 그를 믿었으며 그가 질서를 잡아 평화를 되찾고 혁명이 거둔 정치적·사회적 성과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대했다. 참으로 그는 놀라울 만큼 지적이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지칠 줄 모르고 일했으나, 야심이 너무 컸다. 혁명 덕분에 그토록 일찍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므로 혁명가로 여겨졌고 그 자신도 이 점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혁명가라기보다는 오히려 18세기적 인물이었으며 볼테르(Voltaire)의 진정한 후계자, 가장 잘 깨우친 계몽군주였다. 그는 국민주권·일반의지·의회토론 같은 것을 믿지 않았고 이성 자체보다도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더 신뢰했다. 또 무력의 지원을 받기만 한다면 계몽된 확고한 의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대중을 경멸하면서도 두려워했으며,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장 민간인 같은 장군(the most civilian of generals)’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나, 정작 자신은 본질적으로 군인이기를 그만둔 적이 없었다.<sup>17)</sup>

유럽 권력세계에서 전혀 새로운 인물인 그는 유럽 명문가 출신의 왕들과 황제들을 전투적이고 경쟁적 자세로 차례로 굴복시키고 권력을 접수했다. 그는 엄청난 환상을 정확한 계산과 열성에 의해 실천에 옮겼다. 그는 자신이 남에게 굴복하는 것은 물론 대등해지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지배해야만 했다. 그는 형인 조셉에게 이렇게 썼다: “당신과 나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남을 격려하고 그들의 생각을 따르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게 복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sup>18)</sup>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투적으로 극복하려 드는 그의 열망이 점차 나이 들고 복잡한 국제적 상황을 겪게 됨에 따라 좀더 강제성을 띠게 되고, 그것

17) “Napoleon,” *Encyclopedia Britannica*, 1970 ed., 12:833.

18) Napoleon to Joseph, Reims, 14 March 1814, in Napoleon Ier, *Supplément a la Correspondance de Napoléon Ier*(Paris: E. Dentu, 1887), 207, cited by Parker, “Napoleon,” p. 135.

이 결국은 그를 러시아 평원으로 무모하게 몰고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이 논문과 같이 짧은 글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서 나폴레옹을 항상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전제군주로만 그려낼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갈등하는 감정의 복합체였다. 한 예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칭송하고 존경했으나(그는 드러내놓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어렸을 때 단 한번 어머니가 자신을 속인 일을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St. Helena)에서조차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어린이들을 결코 속여서는 안 된다”고 늘 말하곤 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결점인 사치와 쾌락의 탐닉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버지가 젊은 시절 코르시카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점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프랑스 치하의 코르시카 사회에서 아버지의 소신 있고 명석한 야심가로서의 업적에 대해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형인 조셉과 경쟁하며 자랐고, 이미 두 살 때부터 그를 이기려고 들었다. 그러나 그는 조셉을 사랑했으며(그는 “나는 조셉 이외에는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형을 이겨서 형을 패배한 ‘카르타고인(Carthaginian)’으로 만들고 자신은 항상 승리한 ‘로마인(Roman)’이 되곤 했던 일을 후회하기도 했다. 조셉에 대한 애증의 이중적 감정은 1804년 황제 대관식 때의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도 드러난다. 마침 그 자리에 초대받은 나폴레옹의 어린 시절 유모가 조셉이 ‘매혹적이고 천진난만하고 미소를 잘 짓는 귀여운 아기(un joli enfant)’였다고 회상하자, 유럽의 주인이자 조셉의 주군이기도 했던 나폴레옹의 안색은 금방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으나 대관식을 위해 곧 그와 조셉이 화려한 예복으로 갈아입은 후에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자신은 아버지나 형과 갈등이 없음을 표현하기도 했다.<sup>19)</sup>

19) Parker, “Napoleon,” pp. 135-36. 대관식 때 그는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집어서 썼다(관례에 따르면 무릎을 꿇고 교황으로부터 받아서 쓰는 것이었

나폴레옹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핵가족의 일원이었다. 가족과 가족의 이익증진을 위해 그는 온갖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충성심과 신뢰심을 보여주었다. 집중력과 영향력을 갖추고 또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데 있어서 형제들 간의 경쟁관계(sibling rivalries)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야욕을 지닌 둘째 아들이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신뢰하고 있었으며 속이는 경우는 없었다.

그는 또한 어릴 때부터 8촌 형제와 종교적 代父와 代母까지 포함하여 정신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지닌 대가족의 일원이기도 했다. 그는 이들에게서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나 바깥 세계는 불신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은 다만 계산된 책략과 속임수, 그리고 기만의 대상일 뿐이었다. 나폴레옹이 소년이었을 때, 그의 從祖父인 루치아노(Luciano Bonaparte) 부주교는 이미 그가 거짓말에 능한 것을 보고 그의 먼 장래를 예언한 적이 있었다. 그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 젊은 시절, 코르시카 사회 내부의 마치 요지경과 같은 봉당적 싸움 속에서 상황과 상대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꿈으로써, 그는 이미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산적 인물로 변해 갔다. 그 이후 그의 단순한 말 한 마디 그 자체로는 신뢰할 수가 없었다. 즉, 진실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교활하게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국면을 이끌어 나갔다. 그는 이미 음모가 판치는 국제정치 세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람을 다루는 재능은 일찍이 눈에 띄었으며, 나중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더욱 발전되었다.<sup>20)</sup>

다). 즉, 그는 자기 자신이 왕관을 쥔 것을 전세계에 선언하려 한 것이다. 다른 왕관과는 달리 로마 황제와 같이 올리브 나무 잎으로 된 관을 쓴 이유는 아마도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염두에 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육사전사학과 편, 『나라를 빛낸 명장들』, p. 227.

20) 그러나 나폴레옹의 이러한 특성은, 초기 이탈리아전역과 영국과의 외교관계(1801-1803), 그리고 러시아 침공(1812)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데 특히 부정적인 면

그러나 어찌되었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폴레옹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전투적이고 경쟁적이었다. 나폴레옹을 아주 잘 알며, 그의 경호를 맡은 기병대장을 역임했던 끌랭꾸르(Caulaincourt)는 1812년초 무렵의 나폴레옹은 오직 지배만을 원했었다고 비판했다: “폐하께서는 단지 폴란드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럽 내에서 경쟁국을 허용치 않고 모든 국가들을 오직 제후국으로 만들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을 원하고 계십니다.”<sup>21)</sup> 끌랭꾸르의 말을 확인시켜 주듯이 나폴레옹은 1812년 2월 5일 외무장관인 마레(Hughes Bernard Maret)에게 러시아 주재 대사인 로리스톤(Lauriston)에게 서신을 보내어, “러시아는 톨지트(Tilsit) 조약 당시 러시아가 점했던 열등한 지위로 돌아가야 한다”<sup>22)</sup>는 점을 강조토록 지시했다.

#### 4. 나폴레옹의 리더십과 외교정책의 특성

1785년 사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나폴레옹은 초기에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로 인해, 프랑스군과 마침 독립투쟁을 전개하던 코르시카의 독립군 사이를 오가며 탈영과 복귀를 반복하는 등 방황을 계속했다. 1791년 코르시카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국민군 중령에까지 이르렀던 그는 파올리 일당과의 권력투쟁에서 패하여 결국 1793년 니스에 주둔하고 있던 자신의 연대로 복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때까지 집과 학교와 부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에서 더욱 그랬다. Owen Connelly, *Blundering to Glory: Napoleon's Military Campaigns* (Wilmington, Del: Scholarly Resources, 1987), ch. 2 참조.

21) Armand-Augustin-Louis Caulaincourt, *With Napoleon in Russia*(New York: Grosset and Dunlap, 1935), p. 25, cited by Parker, “Napoleon,” p. 136.

22) *Ibid.*

1793년 툴롱(Toulon) 항에서 영국 해군을 물리친 공로로 24세의 나이에 준장으로 진급한 그는 로베스피에르의 앞잡이로 몰려 한때 투옥되었으나 곧 풀려났으며, 1795년에는 왕당파의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프랑스군 국내 사령관이 되었다. 1796년 3월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이탈리아 방면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이 때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부대들을 원격 지휘해야만 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군들과 병사들을 격려하고 이탈리아의 각 戰役과 戰鬪에서 평야지대를 가로질러 기동하도록 부대를 통제하며, 적군을 저지하고 격퇴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는 부셰(Bourcet)와 기베르(Guibert)의 이론을 읽고 보병, 기병 그리고 포병의 협동작전술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예측불허의 상황하에서 매일 매일 명령을 하달해본 실제 경험은 전혀 없었다. 명석했지만 미숙했던 그는 오로지 승리의 영광을 위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했다.

한편 그는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던 코르시카에서 성장한 관계로 부르봉(Bourbon) 왕가의 계몽전제군주제적 법률체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인 프랑스의 장군들이 점령지인 벨기에와 라인랜드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혁명적 법령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봉착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과는 또 다른 문화적 정서를 지닌 ‘난해한(mystifying) 이탈리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점령지인 밀라노의 협상대표단장인 멜지(Francisco Melzi d'Eril)를 만났을 때, 나폴레옹은 프랑스 공화국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 밀라노 시민들의 자유를 주겠노라고 제안했지만 정작 그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sup>23)</sup> 나폴레옹이 “그렇

23) 나폴레옹의 승리요인과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自由의 이념에 충실한 가운데 그 이념을 유럽 전역으로 전파한데 있었는데, 초기의 이탈리아전역 당시만 해도 아직 이곳에서는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오?”라고 묻자, 멜지는 “평온입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했다.

따라서 그는 이탈리아인들을 관리할 새로운 방안을 긴급하게 강구해야만 했다. 나폴레옹은 당시 이탈리아의 지배자들인 사르디니아(Sardinia)와 나폴리(Naples)의 왕들과 모데나(Modena)·파르마(Parma)·투스카니(Tuscany)의 대공들 및 교황, 그리고 오스트리아(Austria) 황제 등과 협상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했다. 이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피정복민들을 관리하며, 그리고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그의 방식은 차츰 발전하여 나중에는 ‘나폴레옹식 정책과 제도(Napoleonic policies and institutions)’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18세기 국제정치의 복잡한 환경과 이탈리아전역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영리하고 정열적이며 지략이 뛰어난 나폴레옹에게 국제적 야심가로 태어나기에 적합한 토양을 제공했다. 더구나 코르시카 지역사회에서 체득한 투쟁적 가치관과 경험은 나중에 나폴레옹이 좀더 차원 높은 국제외교사회에서 생존경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그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던 초기인 1796년부터 그는 제요소가 상호연관되어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합동작전(a combined operation)<sup>24)</sup> —즉, 軍事戰役의 지휘, 피정복민들에 대한 관리, 외교적 협상, 그리고 필요한 財源의 마련 등—을 단독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에게는 원정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피정복지 현장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미 효율성이 입증된 발전된 프랑스의 혁신적 제도들(법 앞의 만인평등, 도량형제도의 통일, 지휘 및 보급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한계와 계통의 설정, 의회제도, 징병제도)은 군 당국의 조치와 외교협상의 확고한 기준을 제공했다.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프랑스

24) 이 경우 오늘날 공군·지상군·해군 중 2개 군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단순한 군사적 작전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전시 군사작전 외에 정치·외교·경제적 요소가 가미된 점령지에서 행해지는 국가차원의 통치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필자 주).

의 외교전문가들이 이끄는 협상을 통해 동맹국들과 연합국들을 확보해 나갔으며, 군사력과 지배를 통해 일단 한번 얻은 것들은 교묘히 기정사실화하여 나갔다.

이러한 통일된 작전지휘를 통해 나폴레옹식 리더십의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나폴레옹이 일관되게도 확고한 개성을 지니게 된 후, 전쟁에서 나타났던 특성은 협상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정열·신속성·치밀성·교활함·기만성·기민성(dexterity: 나폴레옹이 좋아하는 단어 중의 하나)·신중성·불굴의 정신·무자비성·뛰어난 상상력 등은 나폴레옹의 전쟁과 외교행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 되었다. 그는 명백하게 승산이 없는 절망적 상황하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반전의 기회를 노렸으며, 패주하는 적에 대한 과감한 추격전에서는 사기가 떨어진 채 전전긍긍하는 적국의 전권대사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협상에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전과를 확대하였다.

둘째, 평화시 그의 군사전략적인 결정은 흔히 외교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서의 대외정책의 의미를 지녔다. 예를 들어 강력한 해군함대를 건설하거나 주요 요새를 보강하는 것은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 외에도 상대국에 대해 전쟁 이전에 굴복할 것을 강요하는 외교적·심리적 압박수단이었다.

셋째, 만일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와 나폴레옹의 말대로 ‘전쟁이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공세적 외교란 주로 평화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나폴레옹은 각각 통합된 ‘작전적 전역(operational campaign)’의 결과를 나중엔 좀 더 정교하게 손질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에도 그대로 반영하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자신에 대해 성찰적이었던 나폴레옹은 1806년 달베르그(Dalberg)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상주의자이기

에 사전에 준비된 시스템에 따라 행동하지만, 나는 현실주의자이기에 먼저 상황을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최대한 밀어붙입니다.”<sup>25)</sup> 1797년 오스트리아와의 캄포 포르미오(Campo Formio) 조약을 추진하는 협상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협상 팀을 밀어붙이면서 그는 향후 이 지역 외교정책에 대한 기반을 구축했다. 즉, 벨기에와 라인 국경지방을 점유하고 독일문제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간섭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알프스 산맥 이남을 포함한 이탈리아 내에서의 프랑스의 현 지배권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특히 오토만제국 내부문제에 관여하고 감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유고슬라비아 남서부 지역(Dalmatian)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영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이집트로 진출하거나 또는 나폴레옹 자신의 동방정복 야심을 채우기 위해 인도로 가는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음을 의미했다. 나중에 1801년, 1805년, 그리고 1809년 조약들에 의해 재확인되고 더욱 공고하게 다듬어졌던 이러한 정책들에 의해, 그 동안 매우 비타협적이던 오스트리아를 마침내 굴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sup>26)</sup>

오스트리아가 처리된 이후, 다음 차례는 영국이었다. 캄포 포르미오 조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1797년 10월 18일, 의기양양해진 나폴레옹은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대단히 날카로운 분석과 유럽 지배자로서의 야망을 담은 서신을 외무장관인 탈레이랑(Talleyrand)에게 보냈다.<sup>27)</sup>

현재 프랑스의 국경은 매우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오스트리아 황제는 지금 오직 때만 노리고 있다. 그는 우리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영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이다. 영

25) Parker, “Napoleon,” p. 141.

26) The Treaty of Campo Formio and its secret articles, dated 17 October 1797, are given in nos. 2303, 2304, and 2305 of Napoleon Ier, *Correspondance de Napoleon Ier*(Paris: Henri Plon and J. Dumaine, 1859), 3: 379-89, cited by *ibid*.

27) Napoleon to the Minister of Foreign Relations, General Headquarters, Passariano, 18 October 1797, *Correspondance*, no. 2307, 3: 390-92, cited by *ibid*.

국은 적극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항할 또 다른 동맹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고 무역과 해군력을 파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식민지와 또한 스페인 및 홀랜드의 식민지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해군에 힘을 집중하여 영국을 격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유럽은 우리의 발아래 놓이게 된다.

총명하게도 그는 자신이 조종하고 있던 국제정치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대륙과 해외로의 팽창정책 중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약삭빠르게 합리적인 대외정책을 택했다. 그는 해상통로를 확보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영국 침공(1798) 시도, 이집트 원정(1798), 루이지애나州의 프랑스 재편입(1800), 영국과 평화 유지, 강력한 프랑스함대 건설, 그리고 산 도밍고(San Domingo) 원정 등. 그러나 그는 산 도밍고에서 대패배를 당한 후, 그 동안 영국의 국가이익을 위협해온 공세적 행동—즉, 홀랜드의 지배 유지, 희망봉(the Cape of Good Hope) 장악, 호의적인 무역조약의 거부, 근동지역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 엘바(Elba) 섬과 피에몽(Piedmont) 및 파르마(Parma)에 대한 예고 없는 병합, 그리고 스위스 침공 등—을 어쩔 수 없이 중지하고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루이 14세나 루이 15세와 마찬가지로 나폴레옹 자신도 어느덧 난공불락의 영국과 영국이 지원하는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양면전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전쟁기간중 지속적으로 추진된 강력한 함대 건설과 1803년에 시작된 영국에 대한 무역고립정책은 나중(1806)에 대륙체제(the Continental System)의 근간이 되었다.

이 같은 유형의 행동은 프러시아와의 전쟁(1806)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주요 전략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적에게 일부 중요한 것들을 양보해주는 것에 대해 거의 병적인 거부(拒否)심리를 지니고 있었다. 1810년경에는 이러한 편협하고도 국부적인 성격의 정책들을 그 동안 최대한 추진한 결과, 한 때 그의 탐욕의 대상이었다는 사실만 빼고는

거의 실속이 없는 屬領과 보호령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결과가 나폴레옹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들이었을까? 우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온 그의 이미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꿈과 계획들은 시기와 외부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해 갔음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이념가라기보다는 임기응변에 능한 현실주의자였다. 브리엔느 사관학교 시절에는 그는 파올리(Paoli)와 함께 프랑스의 압제로부터 코르시카를 해방시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805년경 그의 꿈은 황제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은 ‘영토를 넓히고 제도를 정비하는 영웅들’의 제국을 창조하는 혈통을 타고났다고 공언하였다. 제국에 대한 개념도 변해갔다. 그는 처음에는 왕실 가족들이 위성왕국들을 나누어 지배하는 연합형태의 왕국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붓아들인 유제네(Eugene)<sup>28)</sup>가 통치하는 북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상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게 되자, 1810년경에는 동일한 법 제도와 법 앞에서의 만인 평등, 동일한 화폐 및 도량형제도, 그리고 합리적 행정조직을 갖춘 보다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형태의 단일왕국으로 생각이 바뀌었다.<sup>29)</sup>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과거 외교적 전통이나 관행을 점차 이해하게 되면서 그 자신의 행동과 스타일도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어느 경우에는 과거 前例나 전통에 대해 경멸과 교만한 태도로 뒤흔들어 놓았으나, 어떤 경우에는 이미 과거 프랑스가 직면했던 외교적 아젠다 내에서 짜여져 있는 기존의 틀을 놀라운 정력으로 파악하고 적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국제외교적 행동은 전반적으로 과거 프랑스 구체제의 국제정치적 패턴을 벗어났거나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쟁이 광역화되면서 현장에서 작전하고 있던 부하 지휘관들과의 지휘통제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감에 따라 리더십도 변화해 갔다. 원거리 지

28) 황후였던 조세핀이 나폴레옹과 결혼 전에 낳은 아들.

29) Owen Connolly, *Napoleon's Satellite Kingdoms*(New York: Free Press, 1965), pp. 333-35.

휘단계는 그가 이탈리아 원정군 지휘를 맡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강렬하고 수다스러우며 정열적이던 젊은이에서 점차 신중하며 간명하고 지휘관다운 성격으로 변해갔다. 마르세이유(Marseilles)에서 그의 사령관 취임식이 열렸을 때는 그의 옛 동료가 포옹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그의 근엄한 표정에 놀라서 멈칫하고 서버린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남을 제압하기 위해 근엄한 태도를 갖추었지만,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반복됨에 따라 그는 1810년경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봉건군주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 5. 러시아 침공 결정과정

‘나폴레옹이 왜 러시아를 침공했는가’를 단정적으로 그리고 한 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나폴레옹 개인의 성격과 당시 국제정치의 구조, 그리고 ‘양면전쟁의 함정(entrapment in a double war)’<sup>30)</sup>뿐만 아니라, 러시아 알렉산더 황제의 성격과 러시아 사회의 특성, 툴지트(Tilsit) 조약의 모호성, 외무장관이었던 탈레이랑의 음모,<sup>31)</sup>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된 매우 복잡한 상황이 얹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나폴레옹의 성격과 동기 그리고 정책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그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환경하에서 침공을 결정했는가를 묻는다면 대답이 가능한

30) 상대적으로 난공불락인 영국과 러시아와의 동시 전쟁을 말한다.

31) 1808년 9월에 열린 에르푸르트(Erfurt) 회담에서 나폴레옹은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1세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그는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알렉산더 1세의 이러한 태도는 무엇보다도 나폴레옹의 정책에 실망한 외무장관 탈레이랑이 나폴레옹 몰래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었던 데서 비롯했다. 심지어 탈레이랑은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계획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 측에 넘겨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Encyclopedia Britannica, 12: 835; 육사전사학과 편, 『나라를 빛낸 명장들』, p. 231.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언제’라고 하는 좀더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당시의 문서들과 그의 매일 일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게 들어온 보고서와 그가 보낸 명령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러시아 침공 결정이 3단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1단계는 그 동안 우려해 오던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이 급격하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데 대한 나폴레옹 자신의 인지단계이다. 그리고 2단계는 그가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어도 러시아를 선제공격해야만 하는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데 대한 인식단계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공격 결정단계이다.

앞의 1, 2단계에 대한 날짜는 쉽게 확인된다. 1810년 8월 10일 그의 충실한 동맹이자 바르샤바(Warsaw) 대공국의 총독인 삭소니(Saxony) 왕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나폴레옹은 자신의 조병창을 통해 군비를 증강하고 바르샤바에 비해 러시아의 공격에 취약한 모듈린(Modlin)에 주둔중인 폴란드군 성채를 보강하도록 그에게 지시했다. “(러시아와) 나와의 관계는 매우 좋으나, 군사대비태세는 이루어져야 한다”<sup>32)</sup>고 그는 강조했다. 10월 6일경에 이르러 그의 의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삭소니 왕에게 “지난번 전쟁 때 우리를 덮쳐온 코사크(Cossack) 기병대의 칼날 아래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도록 창기병 16개 연대를 육성하라”고 지시하고, 북부 독일과 단찌히(Danzig)에 있는 자신의 군대를 증강했다.<sup>33)</sup> 12월경 그는 그의 정책노선과 그의 제국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물려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폴레옹은, 영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대륙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틸지트에서의 엄숙한 약속에 대한 러시아 알렉산더 황제의 위반을 지적하고, 만일 러시아가 영국 식민지와 영국 본국간의 상품을 운반하는

32) Napoleon to Frederick Augustus, king of Saxony, Trianon, 4 August 1810, in Napoleon Ier, *Correspondance*, no. 16762, 21: 19-29, cited by Parker, “Napoleon,” p. 144.

33) Napoleon to Frederick Augustus, king of Saxony, Fontainebleau, 6 October 1810, *Correspondance*, no. 17009, 21: 181-87, 192-94, cited by *ibid.*

중립국 선박에게 항구를 열어주고 영국과의 평화를 유지한다면,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sup>34)</sup> 그리고 알렉산더 황제가 중립국 선박에게 항구를 개방하여 사실상 나폴레옹의 영국에 대한 대륙봉쇄체제를 종식시키자, 그는 이제까지의 방어적 태도에서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여 1811년 1월과 3월에 독일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각각 대육군(Grande Armée)의 건설에 착수했다. 4월 17일, 그는 군사용 대형 러시아 지도를 준비토록 지시했고, 같은 날 러시아 침공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외무장관 샹파니(Champagny)를 해임했다.<sup>35)</sup> 만일 이때 러시아 침공 결심을 이토록 서두르지만 않았더라면, 비록 러시아는 계속해서 식민지와 영국의 상품을 운송하는 중립국 선박들을 받아들였겠지만, 나폴레옹은 공격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훨씬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sup>36)</sup>

1810년 8월에서부터 1811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그는 대규모의 프랑스 해군건설, 황후인 마리 루이즈(Marie Louise)의 임신, 마세나(Masséna) 장군 부대의 포르투갈 침공과 퇴각, 위성국 통치자들인 동생 제롬(Jerome)·의붓아들 유제느(Eugene)·뮤라(Joachim Murat)·형(兄)인 조셉(Joseph)에 대한 관리, 동생 루이(Louis)의 퇴위, 그리고 홀랜드와 북해연안의 병합 등 많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대륙을 그의 의지 앞에 굴복시키는 ‘대륙체제’를 강화하는데 집중

34) Napoleon to Champagny(for transmission to the ambassador Kurakin), Paris, 2 December 1810, and Napoleon to Champagny(for transmission to Caulaincourt, French ambassador at St.Petersbourg), Paris, 5 December 1810, *Correspondance*, nos. 17179, 21: 297-99, 302, cited by *ibid*.

35) Connelly, *Historical Dictionary of Napoleonic France*, p. 104.

36)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기로 결정한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독일 및 이탈리아 내에서의 군사력 건설과 군사적 대비는 1810년 10월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1811년 1월과 3월에 이르러 공격을 위한 군비증강 조치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실제 공격 결심은 여러 달 동안 공표되지 않은 채 비밀에 부쳐졌기 때문에 결심이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그의 정책적 맥락에서만 보면 러시아 침공은 나름대로 과감하고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에서 보면 그것은 작전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거의 광기로 일을 추진하고, 적에게 사소한 것조차 양보할 줄 모르는 무능을 보이며, 그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들에게조차도 ‘미친 황제(an imperial madman)’로 불리는 한 사람의 집착에 의해 계획되고 실천에 옮겨진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 6. 맺 음 말

모든 사람들의 삶은 나름대로 모두 독특하지만, 나폴레옹은 그의 천재성과 시대상황,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삶의 혹독한 시련으로 인해 역사상 그 어느 인물보다도 더욱 독특하고 강렬한 일생을 살았다.

전장상황을 파악하고 부대를 기동시키는데서 나타난 그의 뛰어난 순발력은 코르시카의 소도시 환경과 가족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교활한 코르시카적 기질은 봉당적인 섬 지방의 권력투쟁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군사적 천재성과 능력은 프랑스에서의 교육, 즉 브리엔느 사관학교 교육과 당시 유럽군에서 가장 먼저 개혁이 진행중이던 프랑스군에서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학과 역사에 대한 엄청난 양의 독서를 통해 강화되고 완성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그의 위대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고, 그의 우수성을 자신은 물론 대규모 대중과 역사 앞에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했다. 『군주론』을 탐독하면서 일찍이 마키아벨리즘에 심취했던 그는 역사 탐독을 통해 알렉산더(Alexander)와 카이사르(Caesar), 그리고 샤를마뉴(Charlemagne) 등 영토를 정복하고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았던 영웅들을 만났다.

국제정치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이미 형성된 그의 개성과 마키아벨리적 책략은 나중에 국제정치에서도 그 가치관과 방법면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가 나중에 제국주의적 전문직업군으로 전환시킨 프랑스 혁명군과 그가 개선시킨 우수한 프랑스식 외교방식, 동맹군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시킨 각종 법령과 제도 등은 전쟁터와 협상 테이블 양쪽에서 모두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공은 또한 매사를 자기의 관점에서 정통하려 들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는 그의 특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게릴라 전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직면했던 새로운 전쟁형태에 대해 ‘전선없는 전쟁(a war without a front)’<sup>37)</sup>이라고 한 정의에서 사물의 핵심을 찌르는 그의 예리함을 음미해봐야 한다. 군사작전의 측면에서 이보다 더 정확하고 간명하게 표현한 예를 찾아 볼 수가 있겠는가?

“중국이 잠들어 있게 하라. 왜냐하면 중국이 깨어날 때 세계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므로.”<sup>38)</sup> 나폴레옹의 이 말은 물론 노스트라다무스식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국을 우려와 경계의 눈으로 지켜보며 벌써부터 견제에 나서고 있는 미국과 서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나폴레옹의 위대한 통찰력의 무게를 더욱 느끼게 된다.

“전쟁계획을 세울 때는 적의 계획도 당연히 계산에 넣어야 한다”<sup>39)</sup>고 한 처칠의 이야기는 전쟁계획에 관한 어떤 금언보다도 더 큰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금언은 군사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거둔 위대한 성공과 지나치게 독단적이고도 자기고

37) Chandler, *The Maxims*, p. 18.

38) *Ibid.*, p. 24.

39) *Ibid.*, p. 87. 나폴레옹은 전쟁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쟁계획은 주변상황과 지휘관의 재능, 부대의 성격, 그리고 작전지역 특성에 따라 언제나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Ibid.*, p. 85.

립적인(self-isolation) 지휘권행사 습관으로 인해 나폴레옹은 결국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전쟁계획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그였지만, 상대적으로 난공불락의 국가인 영국과 러시아를 선불리 공격하는 국가 대전략 차원의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스스로 양면 전쟁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제아무리 선천적인 군사적 재능을 지닌 위대한 장군들이라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자만에 빠지고 오랜 전쟁에 스스로 지쳐버린 나폴레옹은 이러한 교훈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가 남긴 ‘최악의 失言’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60회의 전투를 치렀지만, 내가 처음부터 몰랐던 것 중에 나중에 전투를 통해 배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sup>40)</sup> 아무리 최고로 명석한 천재성과 재능을 갖추었더라도 꾸준히 갈고 닦지 않으면 점차 둔해지고 위축되게 마련이다. 러시아 공격을 선택한 나폴레옹의 운명에서 증명되었듯이.

오늘날 공군의 역할이나 게릴라 혁명전쟁에서의 정치·군사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들이 부각되긴 했지만, 극도로 긴장하고 위험한 상황하에서 고차원의 지휘력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전쟁수행상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은 변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수없이 빠졌던 함정에 다시 빠지려 달려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스웨덴의 찰스 12세(Charles XII)는 고대 러시아 지역을 약탈했던 게르만 기병대를 분명히 연구했어야만 했고 나폴레옹도 1709년 6월 폴타바(Poltava)에서의 스웨덴군의 패배를 교훈 삼았어야만 했다. 그리고 히틀러도 무엇보다도 1812년의 대사건들—특히 ‘동장군(General Winter)’과 전략적 소모, 그리고 빨치산 전투—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했다. 러시아 전사를 연구했던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나의 전쟁 기본원칙 중의 하나는 모스크바로 진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sup>41)</sup>

40) *Ibid.*, p. 240.

러시아 원정은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킬지트(Tilsit)조약과 에르푸르트(Erfurt) 회담을 거치면서 유럽의 국제정세와 러시아의 태도를 관망하면서 처음에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던 나폴레옹이 뒤늦게 공격을 결심함에 따라 서둘러 준비된 전쟁이었다. 따라서 모든 준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바로 그의 대부분의 참모진들이 반대한 이유이기도 했다.

또한 나폴레옹의 특성인 뛰어난 현실주의적 임기응변은 그 동안의 단기전과 전술상황하에서는 미처 예상치 못한 적의 허를 찌름으로써 기발한 성공을 가져왔으나, 장기적 안목의 전략적 상황에서는 조직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합리성과 일관성의 결여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즉 러시아 원정의 경우, 전쟁준비 부족과 부적절한 목표설정, 예하부대의 혼란, 동맹국의 이탈, 그리고 국민들의 동요로 지속적이고도 통합된 전력발휘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18~19세기 프랑스 외교사를 전공한 사학자들의 나폴레옹의 국제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나폴레옹은 국제무대의 이단아(돌연변이)’였다는 것이다.<sup>42)</sup> 그의 행위는 과거 관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정도로 무모하고 또 기발한 착상이었다. 그는 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 항상 기발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허를 찔렀다. 따라서 나폴레옹의 행위는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과거의 전통적 가치관의 관점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심리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sup>43)</sup>

특히 러시아에 대한 원정은 당시 군사적·외교적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나폴레옹 개인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야망과 광기에

41) *Ibid.*, p. 242. 심지어는 동유럽과 러시아에 있는 대하천의 동쪽 제방들이 대체로 서쪽 제방을 내려다볼 정도로 높아서 서쪽에서 공격하는 측이 불리하다는 지구물리학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Ibid.*, p. 170.

42) Orville T. Murphy, "Napoleon's International Politics: How Much Did He Owe To the Past?,"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54(April 1990): 163.

43) *Ibid.*

가까운 집착이 빚어낸 역사적 대참사였던 것이다.<sup>44)</sup> 러시아에 대한 나폴레옹의 공격 결정은 개인의 타고난 천재성이 국제정치분야에서 결국 역사적 범죄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sup>45)</sup>

(원고투고일 : 2004. 6. 17,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나폴레옹의 성격, 대륙체제, 18세기 국제정치구조, 러시아 침공, 틸지트 조약

44) 이 시기에 이르러 그의 적들도 이미 그의 혁명적 개념들을 점차 모방하여 사단·군단 체제를 도입, 중심을 갖춘 전투대형으로의 전환, 전투력 집중, 예비대 보유 등 나폴레옹의 장점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패배한 것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잠재력이 풍부한 동맹국들에 의해 장기 소모전을 강요당하고, 지나친 강압통치에 의해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이었다.

45) Paul W. Schroeder, "Napoleon's Foreign Policy: A Criminal Enterprise,"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54(April 1990): 148.

<ABSTRACT>

## Problems of Napoleon's Leadership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Invasion against Russia

Won, Tae-jae

The first coherent new concept of war-making to manifest itself since Genghis Kan had been demonstrated in the early campaigns of young Napoleon Bonaparte in Italy and Egypt. In his hands it continued to dominate warfare directly for 2 decades since 1796. One historian has asserted that he fought more battles than Alexander, Hannibal, Caesar combined.

But many historians and soldiers of next generations have overestimated Napoleon's military achievement because of his genius. Actually he made more than a few mistakes in tactics and strategy, and the greatest failure was an invasion against Russia. According to Owen Connelly's *Historical Dictionary of Napoleonic France*, Napoleon's closest and most trusted counselors advised against an invasion of Russia. Why did Napoleon overrule them and proceed?

Explaining why he invaded Russia would require a complex history too long to be told here. It would involve not only the personality of Napoleon, the social structures, international politics, and his entrapment in a double war but also the personality of Tsar Alexander,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n society, the ambiguities of the Tilsit treaties, the intrigues of Talleyrand, and much else besides. But if we ask "Why did Napoleon invade Russia?" with emphasis on his personality, motives, and policy, the

simpler question of “When did Napoleon decide to invade Russia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may yield a clue.

I examined the continuing, underlying dispositions of Napoleon’s personality, then recalled the structur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t the close of the eighteenth century, and finally interrelated the two, personality and structures.

I am concluding that great success and the habitual exercise of command from the self-isolation of his office blinded him to the reality of what was possible. Restless, illimitable striving eventually entrapped him into a double war against two relatively invulnerable powers, England and Russia. Like Louis XIV and Louis XV before him, he lost on both fronts.

Most notably, the decision to invade Russia was taken by a person who had distanced himself from the reality in which he was operating, who had pushed events to an insane degree, who continued to display an inability to yield on lesser issues important to the adversary, and who had become, as his closest advisers noted, “an imperial madman.”

Key Words : Napoleon’s Personality, Continental System, The Structure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18th Century, Invasion against Russia, The Tilsit Treaties